

무대에서 만두 빛는 특별한 1인극

천의 얼굴을 지닌 배우 김성녀가 모노드라마 '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으로 광주를 찾는다.

'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은 작가 겸 연출가인 정의신의 연출과 김성녀의 연기력이 더해져 지난해 12월 첫 선을 보인 바 있다.

이번 모노드라마는 작가 정의신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작품이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삶이 그로 인해 어떻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실과 고통을 어떻게 견디고 스스로 치유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평범한 대사 하나에도 치밀한 계산과 정교한 구성이 돋보이는 그의 작품에는 관객의 세밀한 감정을 건드리는 진한 웃음과 슬픔이 서려 있다. 이 작품 역시 단순히 아픔과 슬픔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의신 특유의 잔잔한 감동과 유머를 통해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벽 속의 요정'에 이어 다시 한번 1인극에 도전하는 배우 김성녀는 30년 연기 내공이 집약된 연기를 선보인다. 9곡의 노래를 라이브로 노래하며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일상의 소소하지만 빛나는 행복과 삶의 고통을 담담하면서도 의연하게 극복해나가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세탁소를 운영하며 혼자 살아가는 영순



모노드라마 '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에서 1인극을 선보이는 배우 김성녀.

김성녀 모노드라마 '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

내달 3~7일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

은 재개발로 인한 철거로 곧 삶의 터전이었던 세탁소를 떠나야만 한다. 떠나기 전날, 영순은 찾아가지 않은 세탁물을 정리하고, 만두를 만들기 시작한다. 만두는 가난하지만 정겨웠던 동네에서 가족과 이웃과의 추억이 담긴 음식이자 아들 진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지금은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다양한 맛과 요리방법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만두를 빛는 영순은 만두를 직접 만들어 먹던 시절의 행복했던 추억을 하나둘 펼쳐놓는다.

이 작품은 공연 중에 실제로 만두를 빚으며 진행된다. 극의 사실성과 감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감하게 극장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시도를 결정한 것이다. 아들하게 피고, 정갈히 빚고, 둥근하게 삶는 것 외에 맛있는 만두를 만드는 법은 과연 무

엇인지 등 90분 남짓한 공연 시간 동안 만두를 찌고 굽는 '영순'의 특별한 요리법은 관객들에게 진한 추억과 생각이 못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제작진으로는 회화적이면서도 섬세한 무대로 대표적인 무대미술가 이태섭을 비롯해 김철환(작곡), 김장기(조명), 이경은(안무) 등 그동안 정의신과 호흡을 맞춰 온 국내 최정상급 멤버들이 참여한다.

모노드라마 '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은 오는 7월 3일부터 7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상연된다.

/이보람 기자

난치병 어린이에 사랑과 희망을

광주챔버싱어즈 정기연주회 1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난치병 어린이에게 '사랑나누기·희망 더하기'로 사랑과 희망을 전해 온 광주챔버싱어즈가 14번째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15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004년 창단된 광주챔버싱어즈는 2007년부터 난치병 어린이와 사랑나누기 희망 더하기 연주회를 개최하고 공연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했다.

그동안 광주·전남 지역 어린이 39명에게 6,1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2007년 광주합창전국대회에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8년 여성중창 경연대회에서 화목상을 수상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박호진 지휘자의 지휘로 'Adeimus'를 오프닝 송으로 들려



박호진 지휘자

리가요도 노래한다.

특별출연으로 민들레컨터트가 생기발랄하고 귀여운 '비오는 독길' 등 중창을 들려주고 조이폴 사모합창단의 성가곡합창, 박수용 Jazz Quintet의 무대도 마련된다.

티켓은 전석 1만원(학생 50%). 문의 010-8612-2282. /이연수 기자



조선대학교 감각연구소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캠퍼스 교육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학생들에게 자연놀이와 체험 위주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상에서 찾아보는 탐구생활

조선대 감각연구소 주말예술캠퍼스 진행

조선대학교 감각연구소(미술대학한국화 전공)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주말 예술캠퍼스' 교육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학생들에게 자연놀이와 자연체험 위주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기는 6월부터 8월 24일까지 13회에 걸쳐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기가 진행된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구 푸른길 일대에서 진행되는 '감각연구소-일상에서 찾아보는 탐구생활' 프로그램에는 광주지역 고교생 총 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고교생이면 누

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내용은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자연체험을 살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회화학과 김종경 교수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 강사 등 총 1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참가 학생들은 남종수목화 정성이 기반된 자연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김종경 교수는 "본 사업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예술과 여향광주의 참모습을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비엔나의 저녁, 아름다운 낭만주의 음악

'피아노의 시인' 윤홍천 피아노 리사이틀

13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서

건반위의 음유 시인,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 피아니스트 윤홍천이 광주의 클래식 팬들을 만난다.

윤홍천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연주자다. 광주 공연은 언제나며 관객들이 먼저 초청 연주를 제안했을 만큼 기다렸던 연주자다.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음색과 깊이 있는 음악적 해석으로 낭만 음악을 들려줄 그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리사이틀을 갖는다. 지난 8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공연에 이은 광주 공연이다.

이번 리사이틀은 'Soirees de Vienne (비엔나의 저녁)'을 주제로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으로 펼쳐진다.

윤홍천이 독일로 유학을 가 처음 여행했던 곳은 비엔나였다. 1838년, 슈만도 28살의 나이로 비엔나를 찾았다. 슈만의 비엔나 체류는 좌절과 실망 속에 6개월 만에 끝

나갔으며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윤홍천에게 비엔나는 음반을 구성하는데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독일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그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음악에 빠져 살았으며, 모차르트 이후에는 슈베르트와 슈만의 음악에 관심이 생겼고 슈베르트와 슈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구성하게 됐다.

그는 "슈만의 곡을 연주할 때는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 슈베르트의 곡을 연주할 때는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한다.

윤홍천은 이번 연주회에서 비엔나에서 받은 영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슈만, 프란츠 슈베르트, 프란츠 리스트, 클라라 슈



윤홍천

만을 들려준다.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닉네임처럼 견고한 테크닉과 섬세한 감성으로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이연수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고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 동구		
중앙	223-2378	010-3635-1195
총장	233-4123	010-7755-8824
학운	225-0651	010-3640-2454
■ 서구		
광천	374-2126	010-9602-2565
쌍촌	372-6659	010-6636-2775
화정	381-2156	010-4235-0902
상무	372-7625	010-5013-3889
풍암	681-3179	010-6634-5084
■ 남구		
봉선	653-1920	010-9474-0212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산		010-8245-1625
남부	651-1833	010-2943-8016
송하		010-8620-1925
■ 북구		
운암	525-3761	010-6886-3761
양산	574-3745	010-2646-3205
오치	261-9461	010-3629-0146
문흥	261-9462	010-7601-4480
일곡	573-3200	010-9273-0105
두암	264-7074	010-2684-6091
중흥	433-1503	010-4601-2080
북부	222-2524	010-2656-4543
■ 광산구		
첨단	971-7374	010-3613-2312
신가	952-4864	010-3648-2549
월곡	952-1687	010-3612-1687
우산	951-9954	010-5018-0024
수완	959-1414	010-3101-2526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10-4623-9622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광산지사	010-3601-1102	담양지사	010-4154-8277	영암지사	010-4624-8409
목포(갑)	010-3272-2765	곡성지사	010-6764-6100	무안지사	010-3621-8989
목포(을)	010-3635-6777	구례지사	010-5431-4006	함평지사	010-3773-2522
목포(병)	010-9359-1648	고흥지사	010-9151-2828	영광지사	010-8666-2882
여수지사	010-8648-1236	보성지사	010-5259-6441	장성지사	010-3666-1300
순천지사	010-2547-7890	화순지사	010-3666-5888	완도지사	010-5619-7020
나주(갑)	010-6401-9370	장흥지사	010-3613-6114	진도지사	010-3624-4777
나주(을)	010-3713-7458	강진지사	010-6646-1241	신안지사	010-4627-1472
광양지사	010-2630-1628	해남지사	010-8181-2627		

M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jndn@chol.com 관리국: jsm7139@nate.com 월간국: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jn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peace20090818@hanmail.net